

영광 장애인복지관 제구실 못한다

특정단체 소유... 운영비·인력 확보 어려움 郡 “소유권 이전해야 시설확충·예산 지원”

영광군 장애인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전 특별지원금 13억원으로 지난 2000년 2월 영광읍 단주리에 건립된 장애인복지회관은 737.95㎡ 규모의 2층 건물로 (사)전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 지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회관은 영광군 장애인협회 소유로 돼 있어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면적이 협소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영광군 지회측은 “장애인복지관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후원인 도움으로 컨테이너를 임시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영광군이 직접 나서 장애인협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주체인 영광군 장애인협회 A모 회장은 “공간이 부족해 모든 장애인 단체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영광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협회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군에 이전할 경우 복지회관시설을 보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향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한지로 만든 초대형 청자등. 강진군이 오는 9월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홍보와 관람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한지(韓紙)로 초대형 청자 등(燈)을 제작했다. 첫 작품으로 선보인 삼강청자어룡형주자(漁龍形注子·국보 61호)는 가로 1.8m, 세로 2.8m 크기로 철사에 푸른색 계열의 한지를 붙인 뒤 안에는 전등을 설치했다.

서울예고 유스 심포니오케스트라단 광양 백운아트홀서 클래식 연주

금년새끼 직접 해설도
지휘자 금년새와 서울예고 유스 심포니오케스트라단이 선사하는 클래식 연주회가 19일 오후 7시 30분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시작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5번 e 단조 Op. 64' 등을 선보인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일대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 커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 풀 댕월 교수 등 외국인 교수 4명과 강원대 우경식 교수를 비롯한 9명의 국내·외 학자들은 지난 17일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지 답사차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방문, 유적지를 면밀히 살펴봤다.
해남군 관계자는 “댕월 교수 등은 세계 최초로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되고 익룡 발자국의 보행렬 등이 잘 보존된 우항리 화석지를 매우 높게 평가해 자연유산 등재 전망을 밝게 했다”고 말했다.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는 해남을 비롯해 여수, 화순 등에 걸쳐 있으며 2009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완도 소안면 횡간수도~군외면 동화도 해저 세계 최대 조류발전소 세운다

2015년까지 9천억 투입 30MW 규모 설비
완도군 소안면 횡간수도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발전소가 건설된다.
완도군은 오는 2008년 2월 소안면 횡간수도와 군외면 동화도 해저에 실험용(Pilot) 조류발전 설비(50kW)를 설치, 1년간 정밀조사 및 경제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9천억원을 투입해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목포대가 용역을 맡아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소안면 횡간수도와 군외면 동화도 일대는 수심 40여 m로 평균 조속 2.5m의 해저 조류가 흘러 조류발전소 건설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중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중부발전 전회사, 문재주 목포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조류발전소는 해저 암반 4km구간에 터빈 200여 개가 설치돼 크고 작은 각종 선박들이 조류발전소 설치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30MW 전기를 생산하게 돼 3만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대상 지역은 화흥포 전기발전 해역까지 3km에 불과해 접근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 초·중학생 35명 현장학습 베이징 간다

나주영재교육원이 나주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나주시 지원을 받아 시교육청이 설립한 나주영재교육원은 관내 초중학생 가운데 5%이내 성적 우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나주영재교육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초등학교 19명과 중학생 16명 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북경일대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북경 현장체험 학습은 개별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탐구

화순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

화순군이 지난달 18일부터 16일까지 한달간 여름철 식중독예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집단급식소와 횡집 등 10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화순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군은 ▲식자재 관리상태 ▲주방·조리기구 청결상태 ▲식품유통기간 준수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행주·도마 등 가검물(可檢物) 108건을 수거, 식중독균 등 4종의 검사도 실시했다.
전지현 위생계장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주를 끓는 물에 살균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해남군 홈페이지 새단장

해남군 홈페이지가 최근 산뜻하게 단장됐다. <사진>
새롭게 기능이 확장된 해남군 홈페이지는 군민들의 참여공간이 대폭 확대됐다.
또 비회원의 경우 실명인증만으로도 게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 방법을 용이하게 개선했다.
특히 문화관광 컨텐츠를 정비, 숙박과 음식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민박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검색이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군민들의 홈페이지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정광판과 농수산물 홍보코너 등 무료 홍보 시스템 기능도 강화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